곡성군, 새로운 농촌 관광의 트렌드를 만들다

이틀간 곡성 반다비체육관·죽곡 강빛마을서
치유·힐링 농촌관광, 춤명상 축제in 곡성 개최

곡성군은 지난 8월 12일~13일 이틀 간 곡성 반다비체육관과 죽곡 강빛마을에서 '춤명상 축제in 곡성'을 개최했다.

축제에는 전국 각지에서 14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곡성군이 주관하고 주민공정여행사 '그리곡성'이 지속 가능한 지역관광을 위해 '몸의학교'와 협업하여 기획·운영하였다.

이번 축제의 경우 그동안 군이 운영해 온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농촌愛 올래)인 '섬진강트레킹'과 '태안사숲트레킹'과 더불어 곡성의 자연과 먹거리, 청정한 지역을 느낄 수 있는 색다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또한, 사회와 개인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자기실현과 치유적 연결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축제는 '100명의 친구들과 함께 100개의 드럼, 1,000개의 소리, 10,000개의 몸짓이 어울려 하나의 하트가 된다'는 슬로건으로 진행되었으며 곡성읍에 소재한 반다비체육관에서 축제 메인행사와 부대행사를, 죽곡면에 소재한 강빛마을에서 숙박이 이루어졌다.

주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1일 차에는 대북, 핸드팬, 플룻, 기타 등을 포함하여 우리의 소리와 몸짓이 가미된 Music&Performance, 보이스테라피와 만트라 공명, 드럼서클, Dancing Talk 등으로 채워졌다.

2일 차에는 수피춤명상과 9웨이브, Body Emotion Mind 등으로 운영되었으며 참가자들은 8월의 뜨거운 열기를 이열치열로 맞서며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소통하고 화합하며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가 되었다.

한편, 부대행사로는 포토존 운영, 텀블러 대여 및 판매, 기념품 코너 등이 운영되었다. 이 외에도 곡성의 대표 먹거리인 토란파이 만주와 토란아이스크림, 찰옥수수 등이 간식으로 제공되었고 석곡흑돼지구이와 토란닭곰탕, 멜론소금빵 등이 식사로 제공되어 참가자들이 곡성의 맛과 멋을 오감으로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참가자들은 축제가 끝나고 "도시에서 연일 힘들게 일했는데, 이틀간 치유와 힐링을 하고 갑니다.", "음식과 간식 등 모든 것에서 곡성을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춤명상 축제에만 참여했는데, 다음에는 섬진강을 비롯한 곡성의 자연을 보고 싶네요."고 말하는 등 축제에 큰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농촌관광에서 탈피해 여행과 축제를 융합한 치유관광의 트렌드를 만들 수 있었다. 앞으로도 지역의 자연과 환경, 자원과 음식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곡성군은 이 축제를 비롯하여 11월 중으로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그린우드카빙 캠핑' 등 색다른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연이어 선보일 예정이다.

곡성=양해영기자

장성군, 드림스타트 가족에 여름방학 프로그램 지원

가족 물놀이·영화 관람 등 풍성

장성군 드림스타트 가족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함께했다.

군에 따르면 최근 드림스타트 아이들과 가족 50여 명은 나주시 중흥골드스파로 물놀이를 다녀왔다. 또 광주광역시 어린이과학관을 방문해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했다.

여름방학 프로그램의 대미는 '영화 관람'으로 장식했다. 광주 소재 극장을 찾은 아이들은 평소 보고 싶었던 영화도 보고, 공공장소 예절도 체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성군 관계자는 "드림스타트 아이들과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수권기자

담양군,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키움담소 조성 사업 현장 점검

담양군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조성하고 있는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키움담소 조성공사 현장을 점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8월 준공 예정인 어울림센터 내부 시설 및 공간 배치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키움담소' 사업은 공간재생과 담양읍 도시재생사업과 경제교통과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과의 협업으로, 지난 2022년 4월부터 사업비 48억 원을 투입해 조성에 나섰으며, 8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현장을 방문해 시설 곳곳을 점검하며 담당자들에게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 배치 및 시설물 조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6층 규모로 건립되는 '어울림센터, 키움담소'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풀뿌리공동체 지원센터,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및 공동육아 나눔터 등이 이전해 다양한 중간 조직 간 연계로 담양군의 새로운 소통창구 역할을 하게 되며 5층에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와 창업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

담양=박종영기자

나주시, 초등학생 100명 동신대 영어캠프 수료식

7월 31일부터 2주간 동신대 국제교육원서 '영어 자신감 쑥쑥'

여름방학을 맞아 대학교에서 영어 자신감을 키운 나주지역 초등학생들이 2주 동안의 캠프 생활을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했다.

나주시는 지난 주말(12일) 동신대학교 국제교육원에서 여름방학 영어캠프 수료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학생과 학부모 250여명이 참여한 이날 수료식에서는 2주간 캠프 생활을 담은 영상 상영, 우수학생 시상,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영어 캠프는 관내 초등학생 5~6학년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1일부터 2주간 이뤄졌다.

대학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학생들이 원어민 교사와 함께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등 기초 외국어 과정과 더불어 영어 신문·방송·뉴스 제작 등 과목을 다채롭게 구성해 흥미와 동기를 부여했다.

특히 학습 능률을 높이고자 사전 시험·면접을 통해 수준별 반을 편성하고 모든 수업을 원어민 교사와 영어로 진행하며 영어 자신감을 키웠다.

나주시는 학생 1인당 교육비 130만원 중 91만원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가구 학생은 전액을 각각 지원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수료식에서 마주한 학생들의 힘찬 환호와 자신감 있는 표정에서 영어 캠프의 성공적인 성과를 보고 느낄 수 있었다"며 "나주의 학생들이 미래 글로벌 인재로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수료를 축하했다.

지난 2012년 시작한 동신대 국제교육원 영어캠프는 올해 여름까지 총 2719명의 학생이 과정을 수료했다.

나주=송준표기자

화순군, 도시계획도로 포장 개량…안전한 도심 환경 조성

화순군은 올해 17억 5천만 원의 군비와 국비를 투입하여 도시계획도로 포장 개량사업 추진으로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특히 상반기에는 지하 매설물 공사 등으로 인해 도로가 침하 되거나, 소성변형, 거북 등 균열, 파손 등으로 노면 상태가 불량한 화순읍 산이 고운 아파트 옆 도로와 춘양면 도시계획도로 등 6개 구간 2.3km에 대해 포장 개량을 완료하였다.

하반기에도 5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주거밀집 지역인 ▲화순 부영2차아파트~미룡타운, 유창 3차~신 현대어린이집(1.08km), ▲서라 3차 아파트 진입도로(L=0.12km) 등 주요 도로 2개 노선 1.2km를 추진 예정으로 화순군 도심지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노후도로의 기능이 회복되어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주요 도시계획도로를 적기에 정비하여 군민이 편안하게 도로를 이용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화순=박순철기자